군종주보

2026년 11월 15일(제1326호)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신뢰 위에 맡겨진 탈렌트”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인은 여행을 떠나며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종에게 다섯·둘·한 탈렌트를 ‘맡깁니다’. 이 모습을 영어 번역과 함께 보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맡기다’에 해당하는 단어로 ‘entrust’(NAB, RSV, NJB 등)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맡김 안에는 ‘trust’ 신뢰와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잘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 탈렌트를 맡긴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 신뢰를 느낀 두 종은 이에 응답하듯 돈을 활용하여 재산을 더 법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하기 시작했을 때, 두 종이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다섯·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벌어들인 금액과 상관없이 똑같이 두 종을 칭찬합니다. 곧, 자신의 신뢰에 응답하여 작은 일에 성실했던 종들의 모습에 기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지막으로 남은 종은 앞의 두 종과 달랐습니다. 그의 답변에서 ‘맡기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한 탈렌트를 받은 종은 자신을 신뢰하여 재산을 맡긴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악하고 게을렀는데’ 그럴싸한 핑계를 늘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탈렌트를 활용하지 않았고, 주인을 향한 불신이 담긴 자기 말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에게만 해당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탈렌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탈렌트를 얼마나 맡겨주셨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를 먼저 신뢰하시는 주님을 믿고서 각자 맡은 보직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를 더 벌었느냐보다도 작은 일에 성실했던 종들의 모습에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는 국군장병들과 형제자매님들에게 기쁨과 위로로 다가오기를 희망해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김진오(요셉) 신부
강철(육군 제50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잠언 31,10-13.19-20.30-31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제 2 독 서	1테살 5,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 음	마태 25,14-30
영 성 체 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김 신부는 미 해병 제11사단 군종 에드워드 마틴(Edward Martin) 신부로부터 구호물자를 원조받아 주민들을 돕는 한편 갈곡리에 80평 규모의 성당을 세우고 1956년 4월 15일 축성하였다. 갈곡리 성당은 김 신부가 진해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군 내에 마련한 성당이었다. 마틴 신부는 한국전쟁에 종군하는 동안 고향인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한국의 전쟁난민 구호를 호소, 많은 의류를 원조받아 배포하였다. 또한 소속 부대의 지원을 받아 전화(戰禍)로 잿더미가 된 마을을 재건하고 갈곡리의 석조 성당 및 일산성당 건축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김 신부는 군인들의 복지 사업에도 관심을 쏟아 2개의 천막에 오락 기구와 도서실을 구비한 '우리의 집' 을 마련하여 군인들의 휴식 장소와 교리실로 활용하였다. '우리의 집' 에서는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계급장을 떼도록 했기에 장병사의 구별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대화도 나누었다. 1956년 해병사단의 천주교 신자수는 500여 명에 이르렀다. 1956년 5월 18일 김 신부의 후임으로 진해 해군 통제부에서 김동한 신부가 군종신부로 부임하였다.

6) 해군사관학교에서의 군종활동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천주교 활동은 당시 진해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동한 신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1951년 당시 진해지역에는 해군사관학교를 비롯하여 삼군 사관학교 모두가 있었는데, 김동한 신부는 삼군 사관학교에서 철학 강사로 활동하면서 천주교 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김동한 신부는 철학 강사로 활동하던 중 1951년 11월 10일 해군 군종신부로 임관하면서 해군통제부의 군종과장으로 재직하였다. 김 신부는 이때부터 진해지역의 해군부대 거의 모두를 사목하였는데, 해군사관학교도 사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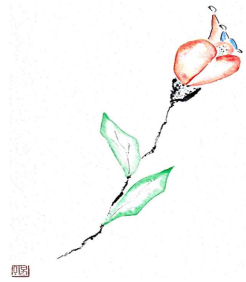
그러다가 1953년 5월에는 당시 해사 특교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김창석 신부가 사관생도 교리를 담당하여 7명의 생도가 영세하기도 하였다. 이어 김동한 신부의 후임으로 김창석 신부가 1956년 4월에 진해 통제부에 부임하면서 해군사관학교의 사목을 담당하였다. 〈다음 주에 계속〉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발췌, 천주교 군종교구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함께 기쁨을



내 마음도 그래요.
당신 마음이 그랬듯이.

그 마음 알기에
이 시간이 행복입니다.

내 삶도 그래요.
당신 삶이 그랬듯이.

그 삶을 알기에
이 자리가 기쁨입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성화이야기

탈렌트의 비유



본 작품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탈렌트의 비유'를 묘사하고 있다.

그림 왼쪽에는 푸른 옷과 붉은 망토를 입고 머리에 관을 쓴 주인이 앉아 있으며, 그 앞에는 세 명의 종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서 있다. 주인은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쥐고 왼손으로 동전을 건네고 있는데, 중앙의 수염 난 남자는 손에 금화를 올려놓고 있고, 오른쪽의 두 젊은 남자는 주인이 나누어 주는 재물을 바라보고 있다. 인물들의 손짓과 시선이 모두 동전에 집중되어 있어,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맡기는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제작 연도 및 작가 미상(성당 본 건물은 1872년 완공)
스테인드글라스, 크기 미상
세인트 메리 애보츠 성당, 영국 런던

이 작품은 중세 스테인드글라스의 전통을 계승한 선명한 색채와 장식적인 구성으로, 주인의 푸른 의복과 강렬한 붉은 망토, 종들의 흰색과 자주색 옷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뒤편에는 붉은 유리 조각과 초록빛 나무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왼쪽의 아치형 건축물과 오른쪽의 나무는 장면에 공간적 깊이를 부여하고, 인물들의 얼굴과 옷 주름을 표현한 섬세한 선은 각자의 표정과 몸짓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특히 화면 아래쪽에 놓인 커다란 꾸러미와 주인이 쥔 돈주머니, 인물들 사이에 오가는 금화는 이야기의 중심 소재인 재산과 책임을 강조한다. 빛이 색유리를 통과할 때 붉은색과 푸른색, 황금빛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성서의 이야기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장면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오늘 복음의 이 비유는 단순히 재물을 증식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탈렌트를 하느님을 위해 성실히 사용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삶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안에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어 보자.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3주일: 용성대 조현우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곳: 11월 15일(주일)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제30회 가톨릭 미술상 운영위원회**
  때·곳: 11월 16일(월) 14:00, CBCK
- **제28회 한일주교교류모임**
  때·곳: 11월 17일(화)~19일(목), 치명자산성지
- **체나콜로와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미사**
  때·곳: 11월 20일(금) 14:40, 명동대성당

◆ **cpbc '군종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개편**
[군인의 수호성인]: 홍보국장 박동진 신부와 함께 군인과 관련된 성인들의 삶을 살펴봅니다.

" '작은 가정교회' 를 이루는 본인성사의 해"